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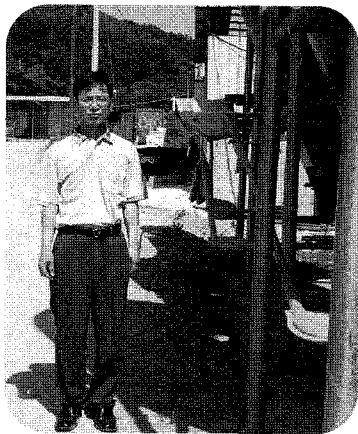
창간 25주년 특집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

철저한 위생·사양관리로 질병 피해 최소화하는 충북 보은 연암농장



취재 : 정재은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연암농장 전경.



◀ 연암농장의 방희진 대표. 철저한 소독 및 방역활동 전개, 예방 차원의 백신프로그램 적용, 깨끗한 급이기 관리 및 충분한 물과 고품질 사료 공급, 세심한 환경 관리와 관찰 노력을 통해 질병 없이 돼지를 키워내고 있다.

는 이점을 갖고 철저한 소독 및 방역활동 전개, 예방 차원의 백신프로그램 적용, 깨끗한 급이기 관리 및 충분한 물과 고품질 사료 공급, 세심한 환경 관리와 관찰 노력을 통해 질병 없이 돼지를 키워내고 있다.

이처럼 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위생·사양관리를 하고, 돼지를 항상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어 질병을 모르며 지내고 있다.

많은 양돈농가가 PMWS, PED 등의 질병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연암농장(대표 방희진, 현재 본회 보은지부장, 만46세)은 청정지역이라

연암농장 현황 및 돈사구성

연암농장의 방희진 대표는 보은 출신으로 82년 모돈 10두로 양돈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95년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 현재 위치로 이사하여 모돈사, 분만사, 자돈사를 신축하였다. 99년도에 추가로 비육사를 신축하고, 2000년도에 비육돈을 입식하였다. 현재 모돈 280~290두, 전체사육두수 3,05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방희진 대표와 부부직원 2명, 고용직원 1명 등 총 4명이 농장 일을 해오고 있다.

연암농장의 돈사는 모돈사 1개동(260평), 분만사 1개동(120평), 초기자돈사 2개동, 자돈사 1개동(120평), 비육사 1개동(55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뇨는 교반식 퇴비화 처리와 함께 해양투기, 액비를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은

- 보은지부 회원들의 질병 차단 노력

보은지역은 질병 발생이 드문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제스키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PMWS, PED 발생도 드물다고 한다. 대규모 사양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가족중심의 일괄농장이 90% 이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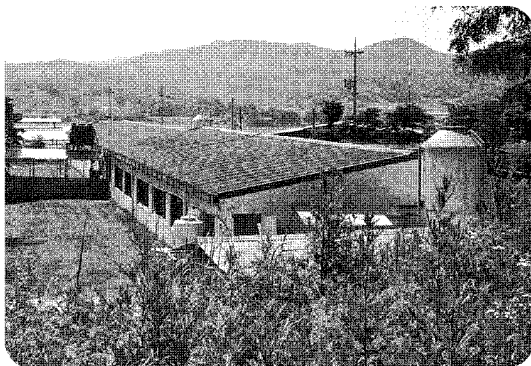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하거나 위탁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이 거의 없어 질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보은지부(지부장 방희진) 회원들은 정보교환과 함께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3년 전쯤에 2개 농장에서 PED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즉시 지부로 연락이 와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었고, 각자 외부인 방문을 차단하는 등 방역활동을 해나갔다. PED가 발생한 농장에 한해서 출하를 일시 중단하고, 농장주가 외부로 나와 사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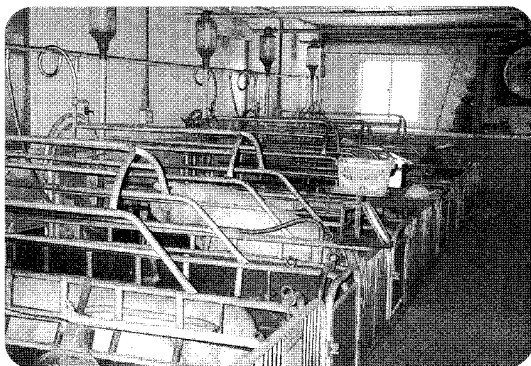
이처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질병차단 노력으로 보은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암농장 역시 청정 환경 하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철저한 소독 및 방역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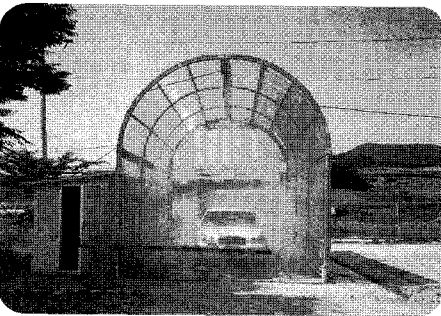
연암농장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질병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농장 출입구에 자동소독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료차, 출하차, 분뇨차, 방문차량 등 출입시 전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방문객 소독실이 있어 방문객 역시 농장 출입시 소독을 하고, 방역복과 장화를 꼭 착용하도록



▲ 연암농장 모돈사 전경. 모돈사는 개방식으로 되어 있고, 분만사, 자돈사, 비육사는 무창돈사로 되어 있다.



▲ 분만사 내부 모습. 적절한 온도유지와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깨끗하다.



● 연암농장은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질병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문객소독실(가운데 사진)과 차량 자동소독시설(맨 아래 사진)

되어 있다.

농장 소독은 하루에 한 번씩 빠짐없이 해나가고 있다.

특히 연암농장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용출하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다른 농장이 이용한 출하차량이 드나드는 경우가 없어 원천적으로 질병을 차단한다.

또한 울인올아웃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돈방마다 발판소독조를 마련해 놓았다.

예방 차원의 백신 프로그램 적용

연암농장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AR, TGE Rota, 대장균, 단독, 돈열, 파보바이러스 등 철저한 백신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PED 백신접종의 경우 대장균 백신접종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을철 일괄백신이 아닌 상시백신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TGE, PED, PMWS 등의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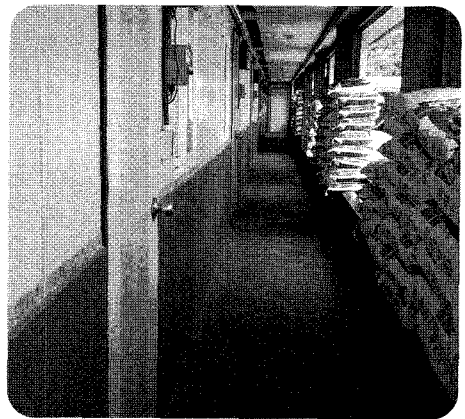
방희진 대표는 “많은 농가에서 TGE 질병의 경우 관납 백신을 통해 꾸준히 접종해 온 결과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PED 역시 꾸준히 백신접종을 해나가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 발생후 치료에 급급해 하지말고, 사전에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깨끗한 급이기 관리 및 충분한 물과 고품질 사료 공급

연암농장에서는 급이기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여름철에는 모돈이 식욕이 감퇴해 사료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후에 부패방지를 위해 남아 있는 사료를 깨끗이 치워주고 있다. 냄새가 나거나 썩은 사료가 남아 있으면 사료섭취를 더욱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급이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급이기 바닥에 사료가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닥을 깨끗이 하고 있다.

사료탱크(피드빈)에 남아 있는 사료량도 정확히 체크하여 적정 양을 보관해 놓음으



▲ 통로가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하다. 벽에는 녹색 페인트 칠을 해놓았는데, 세균의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표면이 매끄러워 수세·소독시 이물질이 쉽게 제거된다.

로써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신선한 사료 급여로 영양 및 면역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질병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료관리는 사료 허실도 방지하게 된다.

한편 경제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사료로 바꾸기보다는 돼지의 건강을 우선시 하여 고품질의 사료를 오랫동안 이용하여 왔다.

또한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 분만사에서는 분당 2ℓ, 모돈사에서는 1ℓ 정도로는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돼지가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해 서서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별도로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세심한 환경 관리 및 계속적인 관찰 노력

밀사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암농장은 자돈의 호흡기, 소화기 질병 발생과 성장 지연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 이유자돈사를 설치하여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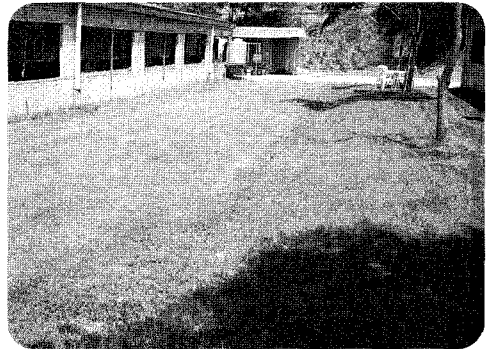


▲ 초기이유자돈사 내부 모습. 사료통에 적절한 양의 사료가 남아 있도록 하여 사료 부패와 허실을 방지한다. 또한 신선하고 충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방희진 대표는 '이유자돈 관리가 비육돈 출하성적을 좌우한다.'는 신념을 갖고 이유자돈에서부터 세심한 관리를 하여 질병발생을 막고 있다.

분만사, 자돈사, 비육사는 무창돈사로 되어 있는데, 온도와 환기량을 계절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분만사의 경우에 모돈 목 위쪽에 닥트 시설을 해놓고 체감온도를 낮춰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고품질의 시설 투자를 하여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연암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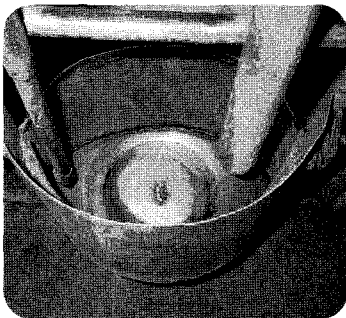
▲ 바닥에 잔디를 심어 놓음으로써 여름철에 쉽게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돈사간 간격이 넓어(돈사 높이의 3배 이상 길이로 떨어져 있음)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온도·시설 등 환경관리로 질병 발생의 기회를 줄여나가고 있다.

장의 경우 96년에 설치한 피트 팬이 올해 들어 처음 고장이 났으며, 부속품만 갈아줌으로써 바로 가동될 수 있었다. 이처럼 시설로 인한 피해 요소 역시 줄여나가 사고율을 낮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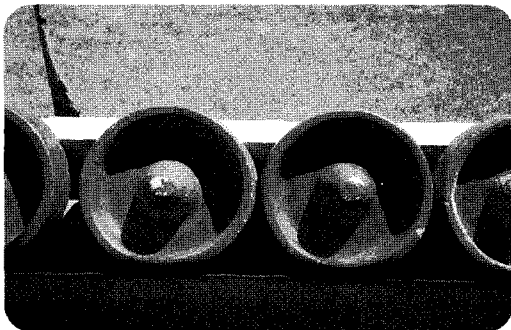
연암농장에서는 하루에 1~2번의 제분작업이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돼지 개체마다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개체마다 세심하게 살펴보아 이상이 있으면 이상 징후별로 다르게 락카로 표시를 해두고 발견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 나가고 있다.

한편 방희진 대표는 “약품을 이용한 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 위생, 환경, 사양관리를 제대로 해나감으로써 질병 발생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며, “세심한 점검을 통해 돼지를 보살피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급이기 바닥에 사료가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닥을 깨끗이 하고 있다. 사료 부패를 막고, 신선한 사료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료급이기를 한번씩 깨끗하게 씻어내고 햇볕에 말린다. 급이기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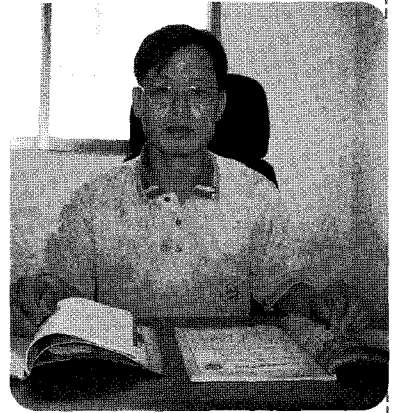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인 출하 유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연암농장의 모돈회전율은 2.42이고, PSY 21~22두, MSY 19.5~20두를 유지하고 있다. 월 출하두수는 450~500두 수준이며, 출하일령 165일에 출하체중이 평균 113kg이다. 아울러 비육사료효율 2.39, 총사료효율이 2.87로 나타나고 있다.

연암농장은 청결한 위생관리와 세심한 사양관리로 질병 발생이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또한 국내평균에 비해 비육돈 출하일령 단축과 높은 출하체중을 통해 좋은 출하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료효율도 좋게 유지해 나감으로써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돼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유지해 나가야

방희진 대표는 돼지의 입장에서 돼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진다. 돼지가 불편해 하지



▲ 본회 보은지부장인 연암농장의 방희진 대표. 보은지부 회원들과 함께 정보교환,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통해 보은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는 않는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료는 잘 먹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살피고 있다.

방희진 대표는 “약품을 이용한 치료에 급급해 하지 말고, 환경이나 사양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감으로써 질병 발생 없이 돼지를 잘 키워내야 한다.”고 말한다. 연암농장에서는 돼지를 항상 관찰하고, 돼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관리와 더불어 영양, 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나감으로써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방희진 대표는 “사육두수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지금처럼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질병 없이 돼지를 잘 키워내고,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돈**